

93.12.10

# 취업여성 결혼이 갈림길

## 사무직 대부분 노동시장서 빠져나가

## 서비스·농어업직은 30살 이후 증가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실태가 결혼을 축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권영자)이 최근 전국 3천2백가구 15살 이상 65살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은 농림어업과 도소매

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미혼여성은 제조업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등 여전히 결혼 여부에 따라 종사하는 산업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무직은 대부분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경향을 보인 반면,

판매직·서비스직·농수산직은 30살 이후부터 절대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도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여성의 15살 이후 현재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취업상태를 분석한 '취업력 조사'에서는 최근 세대에 올수록 여성 취업률 증가현상을 보였다. 또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시기와 결혼·출산에 따라 나가는 시기가 늦어지는 반면, 육아를 마친 뒤 재취업하는 시기는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